

<초안>

축 사

한국 어머니의 사랑을 품고 딸들에게 더 큰 사랑을 심어주고자 오랜 세월동안 인고의 시련 속에<한국여성지도자명감>을 발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이래 처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내외 한국여성지도층 인사 6,000여명을 발굴함으로써 한국여성의 근현대사를 정리하고 21세기 여성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할 초석이 되어 여성학 부문의 소중한 사료로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시대가 도래되는 21세기에 여성의 지위와 권익이 양성신회 관계 속에서 평등사회 지향을 목표로 한국여성지도자명감편찬위원회가 해외50개국 교포사회 여성지도층 인사까지 발굴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문화 창출과 세계지도자양성에 앞장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3.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 영 숙